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2, No. 3, 2010. 8, pp. 193-218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연구:*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권 지 성
(침례신학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침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서울형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의 참여자 98명 중 3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체계이론의 틀 내에서 귀납적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요소별로 연구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들이 반영되었으며, 이밖에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게 될 자산(돈)의 의미,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문화, 공공부문 지원에 대한 인식 등이 별도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본 사업을 비롯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선을 위한 지침들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 질적 평가연구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저소득층 자산형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침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서울희망플러스통장사업'에 대해 질적인 평가를 수

* 이 연구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형 자산형성프로그램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 성과측정 연구' 중 질적 평가 부분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연구자는 동 연구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에 해당되는 평가 부분을 맡아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행하였다.

넓은 맥락에서 볼 때, 이 연구는 빈곤연구의 한 범주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도 탈빈곤정책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빈곤에 대한 연구들은 빈곤의 정의와 실태(김미곤, 2000; 구인회, 2002; 최희경, 2004; 홍경준,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김교성, 2007), 빈곤의 원인과 빈곤화 과정(구인회, 2002; 석재은, 2004; 구인회, 2005; 홍백의, 2005; 김교성·최영, 2006; 홍백의·김혜연, 2007; 김교성, 2007, 김종진·박자경, 2007; 최옥금, 2007; 최옥금, 2008; 이혜숙·임은하, 2009), 빈곤의 결과(이상은, 2008), 빈곤 정책과 서비스(김교성, 2002; 이상록·진재문, 2003; 이상은, 2004; 김영란, 2005; 김교성, 2007) 등을 주제로 다루어왔다. 그리고 빈곤 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이전이나 노동시장 진입전략, 자활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장려세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포함한 빈곤정책은 전통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소득지원제도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1997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리에 의한 보충급여 방식으로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재산이 많으면 급여액이 적고 재산이 적으면 급여액이 많아지는 이러한 구조는 저소득층이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저하시킨다. 이는 물적·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탈빈곤을 어렵게 하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양극화 현상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1998년 기준 총자산, 부동산, 금융자산의 지니계수는 각각 0.462, 0.602, 0.630으로 나타났고(이정우·이성림, 2001a), 2002년도 소득기준 지니계수가 0.4518인데 반해 자산기준 지니계수는 0.73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노대명 외, 2003), 우리사회의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소득보장지원제도의 한계, 심각한 자산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난 2007년 4월에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s)인 '디딤씨앗통장'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시설입소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아동 등을 대상으로 어려서부터 자산형성을 통해, 성인기가 되었을 때 독립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형성시켜 주는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이다.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이러한 사회투자전략의 하나로서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의 소유와 형성을 촉진해주는 제도로서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대도시의 성격상 근로빈곤층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일을 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을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본격 시행하였고, 만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적립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부터는 4개 지자체(경기, 인천, 부산, 전북)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성과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자산형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발달계좌제도(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의 시범사업이었던 ADD(American Dream Demonstration) 참가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결과는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저소득층의 심리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다수 참여자들이 기존의 공공부조정책은 '현상태(빈곤)를 유지하는 생존만을 보장'하는데 반해 개인발달계좌는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Sherraden et al., 2005)으로 나타났다. 또한 ADD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산형성제도가 사회관계 및 정치적 참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McBride, Sherraden, Johnson and Ssewamala., 2003), 자산형성지원제도는 단순한 소득보장지원보다는 저축 및 자산적립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접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점점 활성화되어가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이니만큼, 저소득층 자산형성과 관련된 연구나 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향후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과 확대,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제언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양적 접근의 전형적인 방식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선정한 후, 프로그램 전후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 척도를 활용한 검사를 실시하여 측정하거나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사전사후 또는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비교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양적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아 현실적으로 양적 평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된 것이 질적 접근이다. 이는 프로그램의 투입요소나 산출요소, 결과요소 등을 양적 지표로 측정하기보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질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는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에 대한 본 평가연구를 위하여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2. 문헌검토

1)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1)]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미국을 기점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Saving Gateway, 대만의 가족발달계좌사업(Taipei Family Development Account; TFDA)과 청소년발달계좌사업(Taipei Youth Development Account; TYDA), 그리고 캐나다의 Learn $ave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외국 프로그램 중에서는 미국의 IDA 프로그램만을 소개하고, 이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이 부분은 김미현 외(2009)의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 성과 측정 연구'의 문헌검토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1) 미국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계좌로, 저축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칭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워싱턴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Center for Social Development)의 마이클 쉐라든(Michael Sherraden)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구들의 자산형성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가 개인발달계좌에 적립한 저축액에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매칭액을 지급하여 주택, 고등교육, 창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IDA의 대상은 정부지원 프로그램 자격요건과 동일한데, 빈곤선의 200% 또는 해당지역 소득수준의 40%이하인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IDA 프로그램의 참가자격은 다음 4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소득에 있어서 대부분의 IDA 프로그램은 IDA 계좌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가구소득수준(maximum household income level)'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대가구소득수준은 연방정부의 빈곤소득수준 또는 소속 지역(주정부)의 중간소득의 일정비율, 즉, 연방 빈곤소득수준의 100%와 200%사이, 지역 중간 소득수준의 65%와 85% 사이에 해당된다. 둘째, 근로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IDA 프로그램이 IDA계좌 저축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소득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셋째, 순자산에 있어서 일부 IDA 프로그램은 참가자격을 평가하는데 가구소득 외에 자산소득(집, 자동차, 저축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참여 희망자가 5,000달러 이상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넷째, 참가자격으로 신용기록도 중요시 하는데,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가 부채가 많거나 신용기록이 나쁜 경우, 저축 가능성이 낮으므로 프로그램 가입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매칭지원은 주정부에 따라서 기간이 다양한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운영하며, 매칭지원율도 주정부에 따라서 1:0.5에서부터 1:5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모형은 본인 저축액 대비 1:1 모형과 1:2 모형이다(이태진 외, 2005). 매칭기간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증가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프로그램이 단기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참가자가 짧은 시간에 많은 자산을 충분히 저축하도록 하기 위해 높은 매칭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IDA는 적립금 최대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는데, 연간 단위인 경우에는 $300~$2,000범위 내에서, 4년 단위로 했을 때는 $900~$4,00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적립액은 프로그램별로 사용용도가 다른데, 주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주택구입, 창업자금, 보수교육 및 직업훈련, 집수리, 자동차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IDA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저축(saving), 은행업무(banking) 및 그 이상의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금융교육수업(financial education classes) 수강을 요건으로 하며, 이 밖에도 IDA 프로그램과 관련해 1대1 카운슬링을 받거나 기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IDA정책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정책인 만큼 IDA의 파트너로서 비영리단체가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DA는 'IDA 프로그램의 스폰서'라 불리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금융기관 간의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는데, 비영리단체는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 대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1:1상담 및 기타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제휴 금융기관인 은행 또는 신용조합에서는 참가자가 계좌를 개설하면 IDA 계좌의 거래 전반을 관장하는 것은 물론 참가자의 IDA 계좌에 적립되는 금

액을 매월 통보해준다.

재원은 대부분의 주에서 주정부의 일반예산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조직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기부액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지원에 대해 기부자의 납세액을 경감해주는 금융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TANF 예산과 같은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2)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은 서울시가 2008년 10월에 발표한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의 자산형성프로젝트 중 하나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미래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의 전신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00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2007년 12월 차상위·차차상위 근로빈곤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98가구가 통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은 본인의 저축액(월 20만원)에 대해 1.5배를 매칭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재무컨설팅, 금융교육, 자조모임, 특별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합리적 소비와 저축습관을 배양하고, 동료집단간 정보교환과 정서적 지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2009년 3월 956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데 이어, 9월 4,968명을 추가로 모집하였고, 2009년 연내에 10,000명을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근로능력과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형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향 하에 위와 같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훈련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저소득층 가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가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하여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재산·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중 자영업자는 사업참여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구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지속적인 저축가능성이 낮고 은행거래가 어려운 자는 제외된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위의 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하게 된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본인 저축액 대비 1:1 비율로 매칭 지원하는 저축액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축액 매칭지원은 3년간 매월 5만원~2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 대비 1:1비율로 매칭지원을 한다. 월 20만원씩 저축한 경우에는 3년 후 최대 1,440만원과 이자에 해당되는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저축액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만원과 10만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과 20만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 저축액은 사업에 참가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미국이나 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과는 달리 저축액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기 보다는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저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저축액은 참가자 본인의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중지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된다.

금융교육은 자산관리교육, 소비자교육, 경제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에 3회 이상, 총 9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되며, 본인이 금융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해 가족이 대리 참석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재무컨설팅은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 자산형성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중 재무컨설팅을 받기 원하는 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재무컨설팅은 부채비중 및 적자가계 비율이 높은 저소득 가구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금융·재무상담을 통해 올바른 소비·저축행태를 유도하고 가계구조 개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실시하게 되었다. 재무컨설팅은 전문가의 1:1 재무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진단 및 대책을 제시하고, 예·적금, 대출, 보험, 노후대비책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자조모임은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모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참가자간의 상호 정보교환과 지지의 장을 마련해 준다. 온라인 자조모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참가자 카페를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주택, 창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게시판을 통해 참가자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오프라인 자조모임은 각 지역에 위치한 사례관리기관이 부모교육, 나들이 등 다양한 활동들과 함께 참가자간 친분과 대화를 유도하는 모임을 조직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지속적인 저축독려와 상담, 자원을 연계하는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참가자가 저축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치구, 사례관리기관, 협력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각 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참가자 선발과 관리 등 전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과 관련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구에서는 참가자 신청접수를 받고, 소득·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참가자를 추천하는 등 참가자 접수와 선발 단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례관리기관에서는 매월 참가자의 저축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상담이나 교육, 자조모임, 자원연계를 실시하는 등 참가자에 대한 밀착관리를 통해 참가자가 자산형성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끝으로 협력은행에서는 저축통장을 개설하고, 계좌관리, 매칭지원액 입금 등 사업관련 전반적인 은행

업무를 지원한다.

재원은 시비와 민간후원금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칭지원금 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모든 재원은 시비와 민간후원금에서 조달하고 있다.

2) 저소득층 자산형성에 대한 선행연구

자산형성에 대한 연구는 미국 Washington University의 쉐라든 교수와 New York University의 울프(Wolff) 교수, Wisconsin-Madison의 헤이브만(Haveman) 교수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 세 학자를 중심으로 자산빈곤의 정의, 자산빈곤 계층,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적 접근 등이 연구되었다(강성민, 2007). 여기에서는 미국의 IDA 프로그램을 평가, 분석한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 국내의 자산형성 관련 연구동향을 검토할 것이다.

먼저, 미국의 IDA 프로그램 참가자들(실험집단 537명 중 412명 응답, 통제집단 566명 중 428명 응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저축과 자산축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택소유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 분석했을 때도 유동자산이나 은퇴준비예금, 다른 재정자산 등을 형성하는 데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Abt Associates, 2004).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IDA 프로그램이 한 달에 지출하는 1인당 비용은 64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IDA를 비용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Schreiner, Ng, and Sherraden, 2004).

이후에 IDA 참가자 59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적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저축을 실행하게 되었으며, 목표로 설정한 자산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효과로서, 참가자들은 책임감, 자기존중, 신뢰, 더 나은 미래를 보게 됨, 안전감, 통제(자기효능감), 자산 취득, 시민으로서 의무 등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Sherraden et al., 2005).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이처럼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상당수는 자산빈곤의 실태나 자산분포를 분석하고 있다(이정우·이성림, 2001, 2001a, 2001b; 김진영, 2002; 남상호, 2007, 2008; 남상호·권순현, 2008). 이들 연구는 저마다 초점은 다르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들이 실태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아래에 제시한 연구들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강성민(2007)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자산빈곤을 분석하였다. 정태적 분석에서는 여성가구이고 가구원수가 많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산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총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자산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기간에 따른 빈곤탈출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자산빈

곤가구는 소득이 빈곤한 가구에 비해 빈곤지속기간이 길고, 빈곤탈출율이 낮으며 빈곤층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자산빈곤층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국내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시행된다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거나 직업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기 개발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축적된 자산을 사용하도록 제도적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강성민(2007)과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 강성민과 유태균(2009)은 자산빈곤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으며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일수록 자산빈곤을 조기에 탈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주거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한 반정호(2006)에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빈곤 가구가 1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33.5%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를 분석한 남상호(2007)의 연구에서는 가구원수가 많고, 가구내 취업자수가 적고, 가구주가 여성이고, 연령대가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산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 남상호(2009)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였는데, 6개월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절대자산빈곤 가구는 전체 가구의 13.3%였으며, 순자산 중위수의 40%로 정의한 상대자산빈곤가구는 전체의 29.3%였다. 같은 시기 절대소득빈곤율이 10.2%, 상대소득빈곤율이 14.7%인 것과 비교하면 자산빈곤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특성별로 보면, 70대 이상 가구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서울보다 광역시의 빈곤율이, 1인가구일수록, 일용직일수록, 단순노무직일수록 빈곤율이 높아졌다. 또한 자산빈곤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과 순자산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이들 가구가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의 대부분을 가계 지출에 충당하기 때문에 소득이 자산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빈곤가구의 특정 연령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빈곤완화정책은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동발달계좌 등 보편적 형태의 제도설계를 통해 공평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빈곤가구의 자산축적을 위해 고용창출이 중요하므로,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로는 이태진·신영석·김미곤·노대명(2005)을 들 수 있다. 연구자들이 제안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모형을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둘째, 급여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매칭률은 1:1 또는 2:1로 하고, 3년간 1,000만원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급여는 3년 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전달체계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수급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관리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수급자와 은행 및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넷째, 재원의 경우 1차년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2-3차년도는 일반회계 예산에 더하여 민간자본을 매칭할 것을 권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은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대체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서울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저소득층 자산형성프로그램 성과측정 연구 중 질적 평가 부분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2010년 말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평가연구도 사업 일정에 따라 지속될 예정이다. 질적 평가연구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진과 본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의 자문교수가 함께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자는 질적 평가연구 중에서 본 연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맡아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 연구 접근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연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지침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참여경로에서부터 종결단계까지 체계이론에 근거한 프로그램 설계요소들과 참여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질적 접근을 활용한 것이다.

연구 대상 프로그램인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의 경우 3년간 일정액을 저축하고 모인 돈을 정해진 사용처에 활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목표달성정도를 분석하거나 그밖에 몇 가지 심리사회적 측면들을 측정하여 파악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참여과정에서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의 다양한 양상을 직접 경험하며 갖게 된 의미들을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함의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2)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2007년 11월에 시작한 희망통장 시범사업 참여자 100명[2] 중 30명이다. 참여자들은 모자가구, 부자가구, 조손가구, 유배우유자녀가구, 유배우무자녀가구, 독신가구 등 가능한 모든 가구형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골고루 표집하였다. 가구 형태별 시범사업 전체 참여자 수와 심층면접 참여자 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2)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모두 차상위계층으로서 대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음. 자치구에서 약 50여명을 추천받고, 광고를 통해 희망통장에 대해 알고 매일 전화하던 사람들 중 조건이 되는 사람 30여명, 나머지는 자활, 노숙인, 모자원 등에서 추천을 통해 들어옴(김미현 외, 2009). 2009년 10월 현재 100명 중 2명이 중도 탈락함.

〈표 1〉 심층인터뷰 참여자 현황

구 분		시범사업 전체 참여자 수		심층인터뷰 참여자 수	
한부모가구	모자가구	54	64	13	17
	부자가구	9		3	
	조손가구	1		1	
유배우	유자녀가구	24		9	
	무자녀가구	4		1	
독신가구		8		3	
총계		100		30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25명, 남성이 5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48.0세였으며, 40대(14명), 50대(7명), 30대(5명), 60대 이상(4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육수준은 고졸 14명, 중졸 6명, 대졸 4명, 초졸 3명 순이었다. 주거형태는 월세가 17명, 전세 8명, 기타 5명이었으며 자가는 없었다. 이들이 가진 직업을 보면, 자활근로가 18명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직근로자가 20명, 상용근로자가 9명, 고용주 또는 자영자가 1명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1295.9만원이었으며, 1년간 1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21가구로 70%를 차지했다.

3)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된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접이었다. 심층면접은 30명의 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은 후 2009년 6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으며,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3회씩 진행되었다.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세 명의 면접자가 10사례씩 맡아 면접을 진행하였다. 1회당 면접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96분이 소요되었다. 기타 사업담당자 인터뷰, 금융교육 및 특별활동에 대한 관찰결과와 자료 등을 통해서도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프로그램 담당자 2인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였으며, 자조모임과 금융교육, 봉사활동에 각 1회씩 참여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 활동을 관찰하였다. 이들 자료는 전체적인 분석과정에서는 함께 검토되었으나 연구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결국 자료의 삼각화 차원에서만 활용되었다.

그런데, 전체 면접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면접자들은 세 번의 면접에서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프로그램 종결시 갖게 될 1,800만원이라는 돈의 의미, 현재 전반적인 일상생활, 그동안의 생애 경험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다루었으며, 이 연구는 앞의 두 가지 주제와 관련된 면접내용만을 주로 분석한 것이다. 면접자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접지침서를 구성하고 이를 참고하여 질문하도록 하였지만, 귀납적인 접근을 위해 가능한 한 주요 질문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구체적인 후속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질적 분석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면접이 끝난 직후 녹

음된 자료를 축어록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줄 단위로 분석하였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원자료는 여러 주제를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진술만을 가려내어 유사한 의미단위들을 묶어가는 범주화 접근을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최근 프로그램 설계와 평가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논리모델'을 적용하였다. 논리모델은 체계이론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Kettner, Moroney & Martin, 2008). 또한 투입-과정-산출-결과로 순환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리모델을 염두에 두면서 자료들을 범주화하고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희망플러스통장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등 체계이론에 근거한 프로그램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그밖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자산, 즉 돈의 의미와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형성된 참여자들의 문화, 그리고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는 경험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였다. 각 요소별로 평가된 내용과 경험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범주화 분석 결과

영역	하위영역	범주	하위범주
투입 요소	클라이언트	대상자 확대	대상 확대 / 일반인 참여기회 / 할당은 불공정함
		접근성 향상	정보인식능력 부족 / 맨땅에 헤딩
	서비스 제공자	따뜻함	세심한 관심과 배려 / 챙겨줌 / 애써줌 / 따뜻함 / 친절함 / 자상함 / 진심으로 대함 / 믿음 / 고마움
		공감	공감 / 들어줌 / 마음 아파해 줌
		열심히 일함	열의가 대단함 / 열심히 일함
		정보 제공	정보 제공
		격려	격려해줌 / 힘을 실어줌
		공평	대우를 해줌 / 차별 없음
		손발이 잘 맞음	손발이 잘 맞음
		지속성	실무자 유지
		거리가 멈	소원한 관계 / 무시당함
	물리적 자원	공간이 좁음	좁은 공간 / 개방된 장소 필요
		기록하기 불편함	책상이 없어 불편함 / 의자밖에 없어 불편함
		다과 마련	교육시 음료제공 / 자판기 마련
		쉬는 시간 부족	쉬는 시간이 짧음
		교통 불편	불편한 교통 / 편리함 / 임신 중이라 이동불편 / 거리가 멈

과정 요소	참여경로	기관 추천	기관 추천(제비뽑기)
		직원 추천	복지제공자 추천 / 정보제공
		스스로 찾음	스스로 찾음
		대중매체	TV광고, 라디오 뉴스 / 지하철 광고
		가족의 정보제공	가족구성원 정보제공
	시작단계	기대와 걱정	돈에 혹함 / 의심함 / 걱정과 기대 공존 / 고민을 많이 함 / 엄두가 안났음 / 서류가 복잡함 / 탈락될 수 있다는 전화 받고 깜짝 놀람 / 걱정이 앞섰음 / 부담이 됨 / 힘들었음 / 제2의 출발점 / 생계가 버거움
		꿈같은 일이 생김	복권 당첨 / 꿈같은 일 / 마지막 행운 / 감사함 / 기쁨 / 행복함 / 기회가 생겨 기뻤음 / 된 것만으로도 좋았음 /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
		저축할 기회가 생김	저축에 대한 인식 전환 / 적금할 기회 제공 / 저축을 시작하게 됨 / 다짐함
		희망이 생김	통장을 보면 자신감 가짐 / 희망이 생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됨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게 됨
	중간단계	과거를 되돌아봄	과거가 후회됨 / 과거를 돌아봄 / 부정적 생각 줄어듦
		생활습관 변화	최우선순위 / 저축에 대한 인식전환 / 아껴 쓰게 됨 / 소비습관 변화 / 지출에 계획을 가짐 / 교육을 삶속에 적용 / 저축할 기회 / 저축이 습관이 됨 / 없는 걸로 생각함
		목표 의식	뚜렷한 목표의식
		인식 확대	경제관념 확대
		더 강해짐	삶에 대한 의지 / 어려워도 해야 함 / 인내심 / 힘이 됨 / 자신감 생김 / 강인함이 생김 / 자랑스러움 / 위기대처능력 / 더 노력하게 됨 / 좋은 일만 생김 / 마음이 편해짐 / 일에 생동감이 넘침
		이심전심	자조모임 공감대형성
		적극적으로 살아감	적극적 삶 / 도전하게 됨 / 일을 하게 됨 / 희망과 기대 / 희망이 됨 / 더 나은 곳을 바라봄 / 신뢰함
		행복함	든든함 / 뿌듯함/ 표정이 좋아짐 / 즐거움과 기대감 / 행복함
		가정이 변화됨	새로운 가족이 생김 / 돈 문제로 싸울 일 없어짐 / 평화로운 가정생활 / 가족이 바뀜 / 가족의 의미 깨달음
산출 요소	교육참여	실천으로 옮김	실천에 옮김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 잘 참여함 / 자녀들도 참여
		관심영역 참여	관심영역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함
		필수교육만 참여	필수교육밖에 참여하지 못함
		불가피하게 빠짐	병간호로 한번 빠짐 / 군 면회로 한번 빠짐
		나에게 맞지 않음	무관심 영역 불참 / 흘려들음 / 듣기만 함 / 어긋남

		의무로 참여	의무적 참여
	교육평가	맞지 않음	교육은 도움 안됨 / 피부로 느껴지지 않음 / 지루할 때가 있음 / 식상한 것도 있음 / 나와 거리가 멈 / 수준에 맞지 않음 / 시간이 부족함 / 일상에서 잊어버림
		다시 생각하게 함	생각해 볼 기회 / 되돌아보게 함 / 다시 생각하게 함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됨	구체적 계획 세움 / 새로운 정보 습득 / 모르던 것을 알게 됨 / 절약방법, 소비방법을 알게 됨 / 삶이 담긴 강의
		새 생활을 위한 실천방법을 배움	문제를 알게 됨 / 실천방법을 배움 / 행동으로 옮길 기회 / 가난에서 벗어나는 수단 / 새로운 생활 기회
		자신감을 가짐	걱정 생김 / 자신감
		구체적 목표를 세움	새로운 일을 구상 /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됨
		긍정적 생각을 갖게 됨	돈의 가치 되새김 / 인식 전환 / 부정적 생각의 치유 / 긍정적으로 바뀜
		삶에 영향을 미침	여유를 갖게 됨 / 스트레스가 적어짐 / 삶에 영향 미침 / 다른 영역에 영향
	자조집단	안가는 게 나음	희망적이지 않음
		불편함	답답할 것 같음 / 불편함
		갈 필요 없음	의무가 아님 / 갈 시간이 없음 / 거리가 멈 / 귀찮음
		참여하기 어려움	일 때문에 참여 못함 / 가족을 위해 불참 /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려움
		나에게 맞지 않음	연령대가 맞지 않음 / 인식을 공유할 수 없음 / 회비가 부담스러움 / 정보접근성이 낮음 / 다시 참여하기 어려움
		기회가 안됨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음
		도움을 받음	정보교환 / 문화활동 혜택 / 돕는 기회를 가짐
		가족보다 나은 사람들을 얻음	솔직하게 개방함 / 거리낌 없음 / 위로받음 / 동병상련 / 정신적 도움이 됨 / 지지함 / 이해할 수 있음 / 계속 모이고 싶음 / 가족보다 나음 / 사람을 얻음
		적극 참여함	적극 참여 / 기다려짐 / 역할 맡음 / 내가 만들었음
	전반적 평가	잘 짜여짐	일상이 됨 / 참여할만한 조건 / 잘 짜여짐 / 가족참여 좋음
		문화생활 만족	문화생활 기회 / 공연안내가 좋음
		옥에티	일부교육은 도움 안됨 / 강제 교육은 안좋음
		얽매임	용도규제는 이해 안됨
		2등 시민	좋은 자리가 아님 / 2등시민이 된듯함
결과 요소	목표 수정	바뀜 / 고려중 / 바뀌지 않음	변화 없음: 19명 / 미정: 1명 / 변화: 10명
	수정 이유	안정 추구 / 도전	생각이 바뀜 / 안정성 추구 / 상황이 바뀜 / 더 나은 생활 기대 / 자격증을 활용 / 아직 젊음
	영향	희망을 갖게 함	희망이 이루어진 느낌 / 희망을 갖게 해줌 / 가난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길을 제시 / 삶에 시너지효과 / 동기유발이 됨 / 희망적인 모습으로 변화 / 정신적 변화
		자신감	적금부을 자신감 / 해냈다는 성취감 / 없는 이에게 힘을 줌
		추진력을 얻음	새로운 교육 계획 / 용도 전환 / 구체적 계획 세움 / 유용하게 쓸 것임 / 실천할 수 있어 좋음
		긍정적 생각	긍정적으로 생각함 / 걱정을 덜어냄
		벗어나려는 의지	벗어나려는 의지 / 계속 노력할 것임 / 계속하겠다는 다짐
		긍정적 영향력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싶음
		계속 참여	계속 참여를 원함
경험	돈의 의미	내 생애 가장 큰 행운	복권 이상 / 기적 / 가장 큰 행운 / 기대하지 않은 행복 /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돈 / 뿌듯하고 부자가 된 기분
		희망을 갖고 벗어나게 함	잡을 수 있는 희망 / 벗어날 수 있는 발판 / 탈출구 /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져줌 / 제2의 출발점 / 재출발 의미부여 / 디딤돌 / 희망 파랑새 / 꿈을 펼칠 기회 / 마지막 기회 / 미래의 일부 / 열심히 살 동기 / 기대 / 새로 태어남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	보배로운 가치 / 남의 1억보다 소중함 / 소중한 가치 / 감사함
		눈앞의 행운	구체적인 목표 / 당장 필요한 돈
		자신을 알게 함	자신을 알게 됨
		여유로워짐	마음의 짐을 덜어줌 / 마음의 여유가 생김 / 아픈 것도 낫게 함 / 안정
		끌어올려줌	목표에 빨리 도달하게 함 / 하는 만큼 쌓임 /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줌 / 알속에서 꺼내줌 / 끈을 잡음 / 돌다리 역할
		도전할 힘을 줌	도전하게 함 / 열심히 살 힘을 줌 / 함께 살아갈 밑받침 / 적극적 삶 / 자신감 부여
		가족을 회복시켜 줌	가족에게 행복을 줌 / 가족을 지켜줌 / 가족을 껴안는 즐거움 / 한 가정의 희망 / 미래에 대한 확신 / 자녀의 미래를 열어줌 / 자녀에게 당당해짐 / 자녀에게 보탬이 됨
		살아가는 힘이 됨	태도 변화 / 새로운 마음을 가짐 / 살아갈 수 있는 다리 / 삶의 활력소 / 하루하루 사는 게 즐거움 / 효자 / 소중함과 감사함 / 포기하지 않게 함
		타인을 돕고 싶어짐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음 / 사회에 돌려주고 싶음
	문화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문화를 만듦
		이심전심	공감대 / 유대관계 / 친밀감 / 상호이해 / 터놓고 얘기함 / 같은 처지 / 편하게 느껴짐 / 절제하고 분위기에 맞게 말함
		정보공유	정보공유
		희망을 나눔	위로해줌 / 조력자 / 정신적 도움 / 편안함 / 긍정적 말을 나눔 / 희망적임
		부정적 영향	어두운 사람이 있음 / 부정적 영향력

		공유하지 않음	공유하는 것이 없음
	공공부문 지원에 대한 인식	고마움	고마움
		희망을 줌	희망을 줌 /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촉진함
		자존심 상함	떳떳하지 못함 / 자존심이 상함 / 마음이 아픔 / 썩 좋지는 않음
		벗어나고 싶음	익숙해지면 안됨 / 자기 힘으로 살고 싶음
		돌아가고 싶음	수급자일 때가 편함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결과는 투입, 과정, 산출, 결과, 그리고 경험으로 구성된다. 각 요소들은 하위영역과 범주, 하위범주들을 가지고 있다. 원래는 하위범주 밑에 의미단위들이 있지만 생략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프로그램의 개선에 대한 중요한 지침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분량이 방대함에 비해 학술논문의 지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대체로 드러나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의미단위와 그것들을 묶은 하위범주에 대한 기술은 지양하고, 의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각 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투입 요소

투입 요소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제공자, 물리적 자원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이들 요소를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탐구하였다.

(1) 클라이언트

연구참여자들은 앞으로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 대상자도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참여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구청별로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할당하여 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혜택도 공유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만한 사람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정보를 수집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혼자서 정보를 찾아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을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접근성이라는 요인은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일상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제공기관이 스스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있지만, 잠재적 클라이언트들의 정보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도 필요하다.

(2) 서비스제공자

연구참여자들이 주된 서비스제공자인 사회복지사들과 접촉하면서 경험한 것은 따뜻함, 공감, 열심

히 일함, 정보제공, 격려, 공평, 손발이 잘 맞음, 지속성, 거리가 멈 등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희망통장 사업의 서비스제공자(사회복지사)들은 참여자(클라이언트)들과 적절한 전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전문적인 가치, 지식, 기술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00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허술한 구석도 발견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원조관계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물리적 자원

물리적 자원에는 물적 자원, 시설, 장비 등이 포함된다. 많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교육이 이루어진 공간이 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공간 자체도 그렇겠지만 개별 참가자가 차지하는 공간과 참가자들 사이의 거리를 좁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 전후와 중간에 참가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별도의 개방된 장소가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물리적인 환경 자체는 단기간에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당분간 이로 인한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더 나은 장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부 참여자들은 책상은 없고 의자만 있어 교육내용을 기록하기 어려웠던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커피, 녹차 등 음료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자판기 등 다른 형태의 제공방법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몇몇 참가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쉬는 시간이 짧아 휴식시간이 부족함을 경험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생활현장과 교육장소 간에 거리가 멀어 참석하기 어렵고 교통도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되고 여러 사회복지기관으로 참가 인원이 분산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야 할 것이다.

2) 과정 요소

프로그램 과정요소는 참여경로, 시작단계, 중간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참여경로는 희망통장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하게 된 경로를 말한다. 시작단계는 참여자로 선정된 이후 시작단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다루고 있으며, 중간단계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다루고 있다.

(1) 참여 경로

참여경로에는 기관추천, 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찾음, 대중매체, 가족이 정보제공 등이 포함된다. 참여경로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이미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어쩌면 이들을 '기득권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대상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희망통장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복지제도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이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기관들을 통해 추천

을 받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작업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시작 단계

시작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은 기대와 걱정, 꿈같은 일이 생김, 저축할 기회가 생김, 부담이 큼, 희망이 생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됨 등이었다. 이 범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희망통장 사업에 대해 기대감과 걱정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30만원을 준다는 말에 혹하여 신청하게 되었으나 정말 줄지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갑자기 20만원씩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잘 해가기로 다짐하였다. 희망통장 사업을 위해 처음 저축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컸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능할까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실제로 희망통장 입금을 하고나서 공과금을 못 낼 정도로 힘들기도 했다. 또한 매달 이렇게 2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소비를 더 줄여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다. 엄두가 잘 나지 않는 것이다. 희망통장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참여자들에게 꿈같은 일이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어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쁘고 감사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열심히 해보자는 결심도 하게 되었다. 희망통장 사업을 저축할 기회가 생긴 것으로 경험하는 사람도 많았다. 처음 교육을 받은 이후 제2의 생활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겠다고 생각한 이도 있다. 마지막 기회, 행운이 왔다고 경험한 사람도 있다. 희망통장에 찍힌 잔액을 보면서, 참여자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희망도 생겼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해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희망통장과 병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함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들을 검토할 때, 프로그램의 시작단계에서 서비스제공자들이 해야 할 일은 참여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하며, 다른 참여자들과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갖도록 지원하는 일 등이 될 것이다. 실제로 공공제도가 30만원씩 매칭해 줄 것인가 하는 불신이 존재하고, 자신이 지속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지 못한다면 기회를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감도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함께 참여하게 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 서비스제공자들은 참여자들이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들을 가능한 한 일찍 극복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3) 중간 단계

중간단계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은 과거를 되돌아봄, 생활습관 변화, 목표 의식, 인식 확대, 더 강해짐, 이심전심, 적극적으로 살아감, 행복함, 가정이 변화됨 등이었다. 참여자들은 희망통장 참여 과정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희망통장에 참여하면서 매달 20만원을 입금해도 이전과 생활수준이 다르지 않은 걸 보면서, 이전에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된다.

희망통장은 참여자들의 생활습관을 변화시켰다. 무엇보다도 저축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었는데, 이는 희망통장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저축부터 하게 되면서 생긴 변화다. 돈이 생길 때마다 저축하는 습

관도 생겼다. 월급을 타면 애초에 20만원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저축을 한다. 저축에 대한 긍정적 생각도 갖게 되었고, 소비할 때도 예전보다 신중하게 생각하며 절약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게 된 것도 프로그램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하루하루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니 미래를 바라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참여자들은 경제관념을 비롯해서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이 확대되는 경험도 하였다. 재정관리와 지출 등 경제관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줄어들었다.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내심도 배웠다. 희망통장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우선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 어려워도 악착같이 살아내야겠다는 의지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또한 위기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생긴 것 같다. 목표가 생기니 마음이 더 편해졌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일할 때 생동감이 넘치게도 된다.

자조모임을 통해서는 어려운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으며 함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더 어려운 이를 돕는 경험도 나눴다. 이 범주는 희망통장 사업을 통해 강화된 참여자들의 탄력성(resilience)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전에는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희망통장을 붓고 있는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살고 있다고 하였다.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쓰러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보였고, 기회가 주어졌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희망통장에 입금하기 위해서라도 일을 찾게 되고 하게 된다(이것이야말로 일반 사회구성원들이 가장 흡족해할만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더 건강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희망통장 참여자들은 이 사업의 참여과정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는 경험도 하였다. 돈 문제로 남편과 싸울 일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평화로운 가정생활로 행복해하게 되었다. 남편과 자신이 함께 협력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 생각도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갈 수 있다는 게 행복하게 여겨졌다. 직장이 없으면 희망통장도 그만두어야 하기에 직장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강인한 마음도 생긴다.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이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분석결과들을 보면, 희망통장 사업이 저소득층 참여자들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물론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계획된 3년을 채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3년을 채워 1,800만원을 받게 되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가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일상생활의 패턴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의지와 능력도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고, 함께 이겨나갈 동지들도 생겼다.

3) 산출 요소

산출요소는 흔히 실적으로 측정되는 단위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희망통장과 함께 병행되는 프로그램 참여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참여정도가 반영된 '교육참여'와 교육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경험들이 담긴 '교육평가', 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일들로 이루어진 '자조집단', 그리고 '전반적 평가'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의 세부사업들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주된 내용이 각 세부사업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반응과 경험들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었고, 〈표 2〉의 범주와 하위범주를 살펴보는 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연구결과에서는 생략한다.

4) 결과 요소

(1) 프로그램 목표

희망통장 사업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목표는 중도탈락을 하지 않고 3년 간 매달 20만원씩 적금을 붓고 30만원씩 매칭펀드를 받아 3년 뒤 1,800원의 목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돈을 주거마련과 창업, 교육비의 세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거 또는 창업, 교육비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년간 꾸준히 적금을 부어야 한다. 사업 과정 중간에 목표 용도를 전환할 수 있지만, 사업에 참여할 때부터 참여자들은 각자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이 목표에 변화가 있었는지, 변했다면 왜 변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참여자 30명 중 10명에게 목표의 변화가 있었다. 이중에서 5명은 주거에서 창업으로, 2명은 창업에서 주거로 바뀌었으며, 창업에서 교육비, 주거에서 교육비, 교육비에서 주거로 바뀐 사람이 1명씩 있었다. 목표가 바뀐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안정 추구와 도전이다. 어떤 이는 생각이 바뀌었거나 상황이 바뀌면서 안정성을 추구하였고, 어떤 이는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자격증을 활용하여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후자의 경우 주로 교육비나 주거에서 창업으로 목표를 바꾼 사람들이 그렇다. 아직 젊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목표를 바꿀 생각이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고 고려중인 이도 있다. 바꾸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이 하위범주에 포함된 사례의 경우 어떤 용도로 전환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다.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고 대답한 경우는 19명이었다. 이중에서 12명은 주거 마련, 5명은 창업자금, 2명은 교육비 마련이라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었다.

(2) 영향

희망통장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희망이 이루어짐, 자신감, 계속 할 것임, 구체적 계획,

긍정적으로 생각함, 벗어나려는 의지, 긍정적 영향력, 계속 참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희망통장 사업에 참여해 온 것만으로도 희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갖는다고 하였다. 한시라도 빨리 목돈을 마련해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희망통장 사업이 준 선물 중의 하나는 자신감이다. 프로그램이 종결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적금을 부을 자신감이 생겼고, 더 많은 돈을 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이 크다.

이러한 자신감은 앞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든다. 프로그램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도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지'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의지가 생겼다. 참여자들은 3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쌓인 돈을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이후의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다. 계획의 내용은 각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바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돈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1,800만원이라는 돈이 단번에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발점, 종자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돈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분이 좋다. 앞서 제시된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된다. 창업을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계속 저금을 하겠다는 의지만큼이나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는 이들의 삶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가난을 비롯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립하고 성공하고 싶다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에까지 이른다. 내가 얻은 교훈, 내가 경험한 것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미래의 나와 같은 상황으로 이끌고 싶은 것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참여자들은 사업 종결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희망통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어렵게 잡은 기회를 계속해서 붙잡고 싶은 것이다. 지원금이 줄어들더라도 계속 참여하면서 희망을 키워가고 싶다. 이것은 언뜻 희망통장 사업이 이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의존성을 갖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측면들을 모두 내재화하고 있는 참여자라면 이러한 의존성은 하나의 '희망사항'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늘 불안한 것이므로 안정적인 기반을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다.

5) 참여 경험

(1) 돈의 의미

3년간의 희망통장 사업 참여를 통해 얻게 될 1,800만원은 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서는 그 돈의 의미를 살펴본다. 참여자들의 경험은 내 생애 가장 큰 행운, 희망을 갖고 벗어나게 함,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 함께 걸어감, 눈앞의 행운, 자신을 알게 함, 여유로워짐, 끌어올려

줌, 도전할 힘을 줌, 가족을 회복시켜 줌, 살아가는 힘이 됨, 타인을 돕고 싶어짐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에게 1,800만원의 의미는 '내 생애 가장 큰 행운'이었다. 참여자들은 복권 이상, 기적, 가장 큰 행운, 기대하지 않은 행복,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돈, 뿌듯하고 부자된 기분 등의 다양한 진술로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였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희망통장으로 얻게 될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며, 복권도 아니고, 인생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줄 기적 같은 일인 것이다. 희망통장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했고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것이다. 그것은 잡을 수 있는 희망이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져주고,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고, 제2의 출발점, 디딤돌이 될 것이다.

참여자들에게 1,800만원은 그 금액 이상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희망통장은 돈이나 희망과 함께 사람도 붙여주었다. 혼자서 쓸쓸히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희망통장이 가져다 준 행운은 이제 바로 눈앞에 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되었고,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그 뒤에 당장 필요한 돈을 갖게 되었다. 희망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잘 모르고 있던 자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무기력하게 일에 쫓기며 사느라 몰랐던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이다.

희망통장은 그동안 자신을 누르고 있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 수 있게 해주었고 여유를 갖게 해주었다. 희망통장은 참여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끌어올려주었다.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내가 하는 만큼 쌓인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희망통장을 통해 쌓일 1,800만원이라는 돈은 참여자들에게 도전할 힘을 주었다. 희망통장에 참여하는 것도 도전이었지만, 참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힘도 주었고, 함께 살아갈 밑받침도 되었다. 희망통장은 참여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까지 갖게 해주었다. 자신이 받은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사회에 돌려주고 싶은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2) 문화

희망통장 참여자들이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지 탐구해보았다. 참여자들의 진술들을 분석한 결과, 또 다른 문화, 이심전심, 정보공유, 희망을 나눔, 부정적 영향, 공유하지 않음 등의 범주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범주들은 대부분 자조모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부 참여자들은 자조모임 자체가 희망통장 참여자들만의 문화라고 말하며, 자조모임 안에서도 공통된 소재를 찾고 행동에 옮기면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이 이심전심을 문화의 한 범주로 언급하였다. 자조집단 참여자들 간에 서로 마음이 통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문화의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자조모임 내에서 또는 희망통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서로를 돕기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서로의 힘을 북돋워 주고 희망을 갖도록 한다. 위에서 살펴본 범주들과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두운 면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이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랫동안 어

렵게 살아온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어두운 측면들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조집단 내에서는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유하는 것이 없다는 응답에는 일부 참여자들이 독특한 옷이나 머리모양을 갖고 있어서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과 학력이나 지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3) 공공부문의 지원에 대한 인식

의도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자료에서 드러났다. 여기에는 고마움, 희망을 줌, 자존심이 상함, 벗어나고 싶음, 돌아가고 싶음 등이 포함된다. 많은 참여자들은 공공지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희망통장을 통해서 공공부문은 참여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 사업을 통해 가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지원을 받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게도 했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며 기분이 좋지 않다. 일부 참여자들은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가난에서 벗어나 국가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다. 소수에 불과하기는 했지만, 수급자였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도 있었다. 차상위계층이 되고 보니 오히려 생활하기가 더 힘들고 벅찬 감이 있다. 오히려 옛날이 먹고살기에는 더 편하고 좋았다는 것이다.

5. 결론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희망플러스통장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개선해 가기 위해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크게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운영방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첫째,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이후 희망플러스통장 프로그램의 참가자 규모는 대폭 확대된 반면에, 개별 참가자들이 받게 될 지원액의 규모는 축소되었다. 참가자 규모의 확대는 이 프로그램에서 인간적인 면(따뜻함)을 축소하면서 개별화된 개입을 어렵게 만든다. 지원액 규모의 축소 그리고 최종 자산 규모의 축소는 참가자들의 자활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물론 참가자 규모의 확대와 지원액의 감소는 시범사업 참가자들이 기대했던 바이기도 하고 지원 총액의 제한이라는 한계 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안의 선택은 나름의 장점들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 규모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가자들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금 총액을 시범사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여전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필요하다. 자조모임의 유지와 강화를 전제로 하고 선배 참가자들이 후배 참가자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 마련도 고

려할만하다. 현재의 인력으로 실무자들이 참가자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가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킹을 통하여 희망과 경험을 전수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 총액을 대폭 확대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참가자 규모를 확대하지 말고 개별 참가자들에게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참가자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운영방식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희망플러스통장 저축과 매칭펀드, 재정관리에 대한 필수교육, 사례관리, 자조모임과 문화·봉사 활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 자체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각 세부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축과 관련해서는 참가자들의 생활습관 변화를 돕기 위한 사전과 사후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희망플러스통장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참가자들의 생활습관, 그 중에서도 재정관리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작할 때부터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모든 참가자가 그랬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참가자 규모가 확대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도탈락자의 규모도 커지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재정관리 방식을 바꾸거나 참여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재정관리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매칭펀드와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지원금을 주기보다 중간중간에 분할하여 입금해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끝난 뒤에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걱정도 아닐 것이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재정 지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입금해줄 필요가 있다. 매달 입금액이 쌓여가고 있는 통장을 확인하면서 경험하는 뿌듯함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재정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배운 내용을 일상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강사의 전문성과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고, 충분하고 적합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조정하며, 교육받기에 좋은 물리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들의 교육수준과 지적 능력을 고려하여 분반을 할 필요도 있다. 재정관리 자체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과 교육, 창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들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참가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제 중앙집중식 운영이 아니라 분권화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사례관리를 촉진할 수도 있겠지만 표준화된 운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협력기관들의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표준화를 위한 상세한 매뉴얼 개발과 모니터링 활동이 필요하며, 이 프로그램에 맞는 독자적인 사례관리 방식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자조모임 운영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성민. 2007. “노동패널을 통해 본 자산빈곤의 동태성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강성민・유태균. 2009. “자산빈곤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1): 115-138.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구인회.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 학』 57(2): 351-374.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113-149.

김교성. 2007.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와 원인에 관한 연구: 조세와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를 포함하여”. 『한국사회복지학』 59(2): 143-169.

김교성・최영. 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119-141.

김미곤. 2000. “1999년 빈곤선 계측방식과 수준”. 『보건복지포럼』 41: 5-16.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현 외. 2009.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 성과 측정 연구』. 서울복지재단

김영란. 2005.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41-69.

김종진・박자경. 2007. “근로장애인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251-74.

김진영. 2002. “대우패널 자료를 통해 본 1990년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재정논집』 17(1): 47-74.

남상호. 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현황과 시사점”. 『2007년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남상호. 2008.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석. 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제9차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남상호. 2009.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권순현. 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8(2): 3.-32.

노대명 외. 2003.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반정호. 2006. “중고령계층의 주거빈곤 결정요인”. 『노동리뷰』 10: 84-93.

석재은. 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67-94.

이상록・진재문. 2003.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 분석: 경남. 전북지역 자활후견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52: 241-72.

이상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56(2): 71-91.

이상은. 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60(2): 53-76.

이정우・이성림. 2001. “한국 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이정우・이성림. 2001a. “한국의 부의 불평등 추계”. 『경제발전연구』 7(1): 1-28.

이정우・이성림. 2001b. “한국 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 『노동정책연구』 1(1): 39-51.

이태진・신영석・김미곤・노대명. 2005.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숙・임은하. 2009. “빈곤가정의 빈곤화 과정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8): 255-94.

최옥금. 2007.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

학』 59(1): 5-25.

최옥금. 2008.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분석-비빈곤층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55-77.

최희경. 2004. "공공부조 수급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현황과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2): 237-5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경준.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119-42.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90.

홍백의 · 김혜연. 2007.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경향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59(3): 125-46.

Abt Associates. 2004. *Evaluation of the American Dream Demonstration: Final evaluation report*. Cambridge, MA: Abt Associates.

Kettner, P. M., Robert, M. Moroney, and Lawrence. L. Martin. 2008. *Designing and Managing Programs: An Effectiveness-Based Approach*. Sage.

McBride, A. M., Sherraden, M., Johnson, E. and Ssewamala. F. 2003. How do poor people save money: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Annual conference*, Washington, D.C. January 17.

Schreiner, M., Ng, G. T., and Sherraden, M. 2004. Cost-effectiveness in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CSD Working paper 04-04). S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Sherraden, M., McBride, A. M., Johnson, E., Hanson, S., Ssewamala, F., and Williams Shanks, T. (2005). Saving in Low-Income Households: Evidence from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in the *American Dream Demonstration(CSD report 05-02)*. S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A Qualitative Evaluation Study on the Asset-building Program for Low-income Individuals

Kwon, Ji-Sung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sset-building program for low-income individuals and to presen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guidelines about asset-building of them. To achieve this purpose, researcher conducted a qualitative evaluation study for 'Seoul Hope Plus Savings Accounts Program' Seoul Welfare Foundation have implemented.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 with 30 participants of 98 program members, and analysed inductively applying systems theory. As results, subjective experiences of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input, process, output, and outcome, and themes such as 'the meaning of asset(money)', 'the culture participants are sharing', 'attitude about public assistance'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 presented guidelines for developing asset-building program.

Key words: qualitative evaluation study, asset-building program, low-income individuals

〔논문 접수일 : 10. 04. 07, 심사일 : 10. 04. 08, 게재 확정일 : 10. 04. 27〕